

---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출장기간 : 2023년 9월 21일 ~ 9월 23일(2박 3일)

출 장 지 : 일본 동경(도쿄도) 및 요코하마시

출 장 자 : 최성은, 이형복, 안용준

## 1. 출장목적

- 일본 동경과 요코하마시 방문을 통해 해외의 지역 인구 증가, 출생률 증가, 생활인구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학습하고, 우리 지역(대전과 세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함
- (여행 세부 목적) 일본의 인구감소,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응한 선진 사례 검토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도시디자인, 경관 사례: 도쿄도청사 방문)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마천루이자 도청 건물로서 시민에게 무료 개방되고 있는 전망대 및 매력적인 도심 야간경관 답사
  - (30~40대가 가장 살고 싶은 지역 1위\* 사례: 요코하마시 방문) 요코하마시의 경우, 고령화와 지역쇠퇴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협치와 주민자치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특별자치시 추진 노력, 자치구별 마을만들기 사업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경제 2022년 3월 14일자 기사 “도쿄 떠나는 日 3040... '살고 싶은 동네' 1위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3142240i>)
  - 특히, 인간적 도시 만들기를 시정가치로 두어, 디자인도시로서 지역의 활력을 찾고 있어 향후 대전과 세종의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유입, 지역활력도 제고에 필요한 벤치마킹 사례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지역임
  - 육아지원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사례(육아응원아파트인증제도 등)를 검토해 보고자 함
  - 쿠니요시 나오유키(NAOYUKI KUNIYOSHI) 요코하마 시립대 초빙교수 면담(전 요코하마 공공디자인)을 통해 대전과 세종지역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청취

2. 출장기간 : 2023. 9. 21.~9. 23. (2박 3일)

3. 출 장 지 : 일본 동경(도쿄도) 및 요코하마시

4. 출 장 자 : 최성은, 이형복, 안용준

역할	성 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구책임	최성은	세종연구실/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이형복	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장(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안용준	세종연구실/세종연구실장(책임연구위원)

II

출장 일정

일자	시 간	도시	세부 일정	비고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9.21 (목)	전일	대전→ 인천→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 인천공항(06:35~11:25) → 동경 나리타공항 이동 (11:25~13:50, OZ104)</li> <li>*출장자 1명 서울에서 출발 후 복귀</li> <li>⇒ 동경 내 숙소로 이동 (17:50 도착)</li> <li>[나리타공항→ 시타딘 센트럴 신주쿠 도쿄]</li> <li>- 공항 제2빌딩 → 나리타 익스프레스 탑승(편도 가격 - 3,250₩) → 신주쿠 역 하차(4개 정류장) → 신주쿠역에서 호텔까지 도보 이동(도보 12분)</li> <li>▶ 이동시간 약 4시간 소요, 총요금 3,250₩/1인</li> <li>⇒ 도쿄도청사 방문 및 도쿄도청사 전망대 답사 및 자료수집 [시타딘 센트럴 신주쿠 도쿄→ 도쿄 도청사]</li> </ul>	
9.22 (금)	전일	요코하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 → 요코하마시 이동</li> <li>⇒ 미나토미라이 역사 내 카페(고디바)에서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 1차 면담(11:30~12:10)</li> <li>- 연구진 소개</li> <li>- 출장 목적 및 인터뷰 요청 사항 전달: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혁신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논의</li> <li>⇒ 점심 식사(12:10~13:10) 후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 2차 면담(인터뷰) 및 현장 답사(13:10~18:30)</li> <li>-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기념 프레젠테이션룸 현장 답사</li> <li>- 요코하마시립대 회의공간 방문 후 인터뷰 실시</li> <li>- 미나토미라이 지역 주요 도시디자인 사례 현장 답사: 랜드마크 타워에서 사쿠라기초역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에스컬레이터, 에어캐빈, 1930년(쇼와5년)에 건조된 범선 넛폰마루 메모리얼 파크, 지하통로에 게시된 요코하마 도시계획 기록 검토</li> <li>- 요코하마시청사 방문 후 public information center 자료수집(육아옹원아파트, 육아리브인 등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자료 요청)</li> <li>- 요코하마시청사 바로 옆 오크우드 스위트 요코하마(Oakwood suite yokohama) 호텔 무료 전망대(46층) 현장답사</li> <li>⇒ 요코하마시 숙소로 이동 (HOTEL)</li> <li>[요코하마시청사→ 더 스퀘어 호텔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the square hotel Yokohama Minatomirai]</li> <li>▶ 이동시간 약 15분(택시 이용)</li> </ul>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경제·경영학부 쿠니요시 나오유키 (Naoyuki Kuniyoshi) 초빙 교수, 전 요코하마시 공공디자인
9.23 (토)	전일	요코하마시 →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코하마시 → 나리타공항 이동</li> <li>⇒ (~16:00) 호텔 체크아웃 후 미나토미라이21 지역 아카렌카</li> </ul>	

일자	시 간	도시	세부 일정	비고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창고 및 아미시타 공원 현장 답사 - 건담팩토리 - 아카렌카창고 - 일본우선 히카와마루  ⇨ 요코하마시(16:00) → 나리타공항 [요코하마시→나리타공항 이동] - 요코하마 역에서 나리타 익스프레스 탑승(편도 가격 4,370₩) ▶ 이동시간 약 1시간 25분, 총요금 4,370₩	
		인천 대전	⇨ 나리타공항(19:25 OZ105) → 인천(22: 30분 도착, 공항 리무진 22:50 출발) → 대전 복귀	

## 1. 도쿄도청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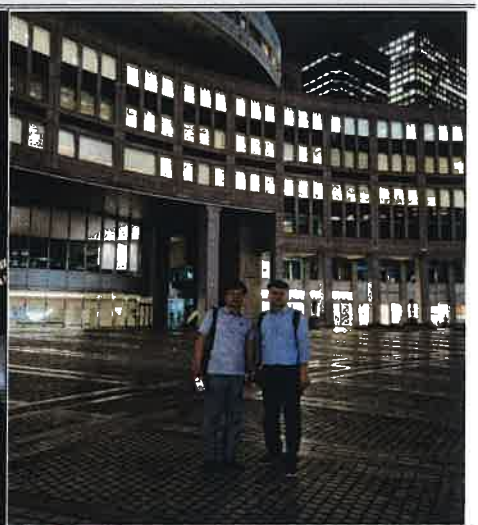




- 장소: 도쿄도청사. (주소)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 참석자: 최성은, 이형복, 안용준
- 현장 답사 내용: 도쿄도청사 전망대
  - 도쿄도청사는 도쿄의 야경을 45층 높이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이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임. 완공된 1991년도에는 2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지금도 전망대를 방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
  - 도쿄도청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단게 겐조가 설계했으며 제1청사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모티브로 만들었음, 특이한 건축 디자인 덕분에 도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음
  - 도쿄도 제1 청사는 남,북 2개의 타워로 나누어져 있고 각 45층에 전망대가 있음. 전망대는 약 202M의 높이에 있으며 전망대는 입장료는 무료임
  - 출장 기간 9월 21일~23일 동안은 남쪽 전망대만 개방함
  - 남쪽 전망대는 22시까지 운영하며 21시 30분까지 입장할 수 있고, 전망대를 가기 위해선 제1청사 1층에서 간단한 소지품 검사 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갈 수 있음
  - 남쪽 전망대에는 스카이트리, 도쿄 타워 등의 랜드마크가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후지산도 볼 수 있음. 전망대 내부에는 카페와 기념품 매장이 있음



도쿄도청사 전체

자료: 도쿄도청사 홈페이지 인터넷 이미지

○ 사진으로 보는 현장 답사 시사점: 도쿄도청사 전망대

현장 답사 결과 및 시사점	도쿄도청사 및 전망대	
<p>도쿄도청사 제1청사(좌) 및 도의회 건물 앞(우)</p>		
<p>도쿄도청사 제1청사 로비를 활용한 정책 홍보. 다양한 도정 홍보 자료를 무료로 배포 중(도청 견학 안내서, 아빠 육아방법 안내, 노인 복지서비스 안내 등)이었음. 야간 시간에 공간이 폐쇄되는 우리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개방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 도쿄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대전과 세종 역시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p>		
		

도쿄도청사 제1청사 로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려동물 양육, 에티켓 등 자료 전시, 파일케이스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 홍보물 무료 배포 중임. 최근 대전과 세종시의 경우도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비반려가구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바, 청사 로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민친화적 정보 제공 방식은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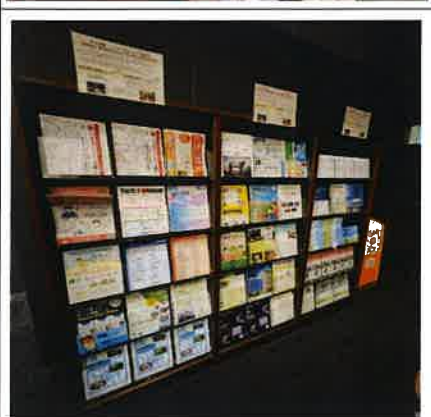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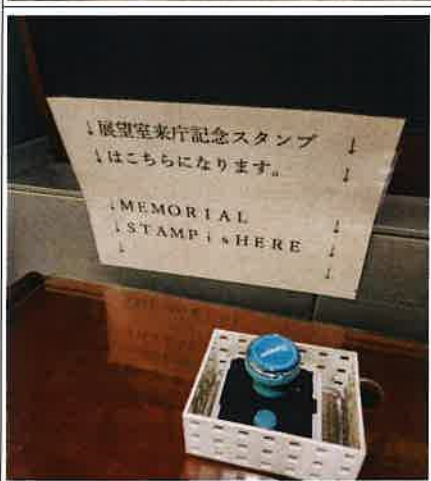


현장 답사 결과 및 시사점

도쿄도청사 및 전망대



도쿄도청사 무료 전망대.  
45층에 위치함. 전망대 내부  
카페와 기념품 매장 있음.  
도청사 건물을 대표적인  
관광지로 활용한 사례이자,  
다양한 도쿄도의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엘리베이터 안내요원은  
대부분 고령자였음.





현장 답사 결과 및 시사점	도쿄도청사 및 전망대
추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도 청사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인 도쿄도 제1 청사는 높이 243M의 마천루 두 동으로 구성된 건물이며, 1993년에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296M)가 완공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음</li> <li>- 도쿄도 청사가 착공 되기 시작한 1988년은 일본 버블경제 전성기의 막바지 시점이었고 당시 일본 제일 초고층 빌딩이었기 때문에 일본 버블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었고 '바벨탑' 이라고도 불림</li> </ul>



자료: 도쿄관광 공식사이트 GO TOKYO(<https://www.gotokyo.org/kr/index.html>), 도쿄도 홈페이지(<https://www.metro.tokyo.lg.jp/>)

## 2. 요코하마시 현장 조사 및 쿠니요시 나오유키(NAOYUKI KUNIYOSHI) 교수님 인터뷰

### 1)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 1차 면담(11:30~12:10)

- 장소: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역사 내 카페(고디바)
- 일시: 2023년 9월 22일 11:30~12:10
- 참석자: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요코하마시립대 초빙교수),  
최성은, 이형복, 안용준
- 면담 내용: 연구진 소개, 출장목적 및 인터뷰 요청 사항 전달 -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혁신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논의

1차 면담 주요 내용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역
<p>요코하마 시립대학교 경제·경영학부 쿠니요시 나오유키(Naoyuki Kuniyoshi) 초빙교수, 전 요코하마시 공공디자이너 면담 진행: 연구진 소개, 출장목적 및 인터뷰 요청 사항 전달. 이후 일정 논의함.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혁신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장 답사 경로 등</p>	

1차 면담 주요 내용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역	
		

## 2)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 인터뷰

- 장소: 요코하마시 랜드마크 타워 내 요코하마시립대 회의실
- 일시: 2023년 9월 22일 13:10~15:10
- 참석자: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요코하마시립대 초빙교수),  
최성은, 이형복, 안용준

### ○ 인터뷰 내용:

- ① 첫 번째 질문, 요코하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경관에 최신의 시책은 무엇인가?
  - ☑ 이하,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님 인터뷰 내용(동시통역: 이형복 선임연구위원)
    - 요코하마는 작년에 요코하마 경관 5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은 새로운 도시계획(도시만들기, 도시경관 등)들을 논의하는 첫 단계로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님은 시민위원회에 회장을 맡고 있음
    - 새로운 공간을 지속적으로 갖춰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어떤 활동을 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고, 결론 내린 것은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고 그 커뮤니티 공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와야 지속성이 가능하다는 것임
    - 지금의 주된 계획은 외곽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임. 예전에는 중심 부분만 도시 만들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외에 있는 곳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로 함. 예전에 외곽지역은 논,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주함에 따라 주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 이 사람들이 '요코하마인'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곽지역에도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예전부터 미나토 미라이라는 공간을 만들며 요코하마의 정체성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을 확산시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함
- 요코하마시가 도쿄도(동경)하고 다른 점은 도시공간에 멋진 하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50년 정도를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임. 그 결과, 요코하마시는 일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되었고 또한 동경에서 떠나고 싶은 기업들이 가고 싶은 지역 1위임
- 50년 전 요코하마는 그저 온천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정도의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멋지고 현대적인 도시 경관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지가 되었음. 예전에 있던 전통적인 건축물을 잘 복원했고 야관 경관도 만들면서 이러한 점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다 보니 사람들이 요코하마로 몰려들었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요코하마에 대한 자긍심이 커져 요코하마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자랑이 되기도 함(자동차에 요코하마 넘버가 달려있으면 자랑스러워하거나, 요코하마 사람들이 예전엔 요코하마에 살아도 카나가와 현 출신이라 소개하던 것이 이제는 요코하마 출신이라 말하는 등) 이렇듯 요코하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고, 성공적이라 평가됨
- 요코하마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최신 전략은 18개의 구가 하나하나에 개성을 가질 수 있고 각 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고 있음. 예전에는 랜드마크 등의 보여주는 경관들을 만드는 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주거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경관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고 있음
- 또한, 예전에는 도시 디자이너와 공무원들이 서로 얘기를 통해 도시를 꾸려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로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됨. 지금 요코하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전문가와 주민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끌고 가는 것임

② 두 번째 질문, 요코하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통 분야의 주요 시책은 무엇인가?

☑ 이하,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님 인터뷰 내용(동시통역: 이형복 선임연구위원)

- 일본은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요코하마도 재개발을 하면서 마을과 마을 안에 교통시설 등을 둘 수 있는 새로운 차량들을 배치하고 있음, 이미 도쿄 이케부쿠로에 '이케버스' 라고 하는 8인승 교통수단이 운행 중에 있고 요코하마에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천천히 다니며 마을의 역사 경관을 볼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작은 교통수단으로 전기자동차임
- 앞으로는 개인 모빌리티(PM)를 활용하여, 마을 안에 운영 예정임
- 배로 돌아다니는 버스 'SEA BASS'가 요코하마 내 운영 중이고 오세훈 서울 시장도 이를 보고 한강을 이용한 교통시설을 만들고 싶어했음. 그렇지만 서울 시장은 에어케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서울에 도입하려 한다고 함

- “에어케빈”의 이름을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님이 지었음. 아쉬운 점은 에어케빈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엔 요금이 비싸다는 wkyf: 지금은 거의 관광객들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음



- ③ 세 번째 질문, 일본사람들은 전동 킷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사진출처: :www.yokohama-bayquarter.com

**☑ 이하,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님 인터뷰 내용(동시통역: 이형복 선임연구위원)**

- 일본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좁아 전동 킷보드를 타기엔 위험도가 높아 많이 타지 않는 것 같음. 지자체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동 킷보드 자체를 일본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데 다른 공공교통수단이 있으니 그런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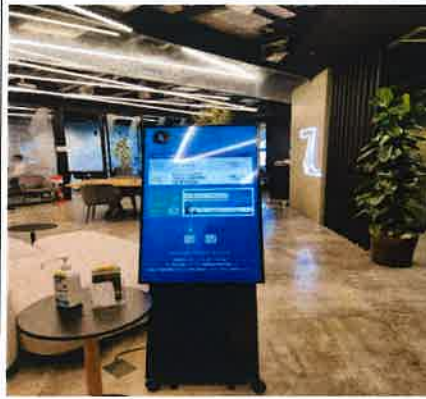
- ④ 네 번째 질문, 요코하마시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나름의 전략이 있는가?

**☑ 이하,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님 인터뷰 내용(동시통역: 이형복 선임연구위원)**

- 전(前) 요코하마 시장님이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은 보육원(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것임. 동경의 경우 보육원에 들어가려면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대기아동 또한 많은데, 요코하마의 목표는 ‘대기아동 ZERO’로 젊은 사람들이 요코하마에 와서 아이도 맡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음
- 그리고 인가보육원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반해 비인가 보육원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이었어서 시민들이 이용이 쉽지 않았음. 따라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인가보육원을 늘리는 정책에 방점을 두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장소에 대해서도 기차길 주변이나 차도 주변, 육교 밑 등은 비록 아이들을 키우기 좋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 보육원을 만드는 공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여왔음
- 현(現) 시장님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까지 아동의 의료비를 전부 무료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세우고 있음 또한 예전에는 도시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중학교까지 급식을 제공함(공립 학교 한정)
- 육아리브인제도와 육아응원아파트 등은 요코하마시청사를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현장 답사 결과 및 시사점

요코하마시립대 회의공간 방문



랜드마크 타워 내  
요코하마시립대 회의공간  
방문 후 인터뷰 실시



### 3) 요코하마시청사 및 인근 현장 답사

- 장소: 요코하마시청사 및 요코하마시청사 바로 옆 오크우드 스위트 요코하마 (Oakwood suites yokohama) 호텔 무료 전망대(46층) 등
- 일시: 2023년 9월 22일 15:10~18:30
- 참석자: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요코하마시립대 초빙교수), 최성은, 이형복, 안용준
- 현장 답사 내용:
  - ①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기념 프레젠테이션룸 현장 답사
  - ② 미나토미라이 지역 주요 도시디자인 사례 현장 답사: 랜드마크 타워에서 사쿠라기초역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에스컬레이터, 에어캐빈, 1930년(쇼와5년)에 건조된 범선 닛폰마루 메모리얼 파크, 지하통로에 게시된 요코하마 도시계획 기록 검토
  - ③ 요코하마시청사 방문 후 public information center 자료 수집(육아응원아파트, 육아리브인 등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자료 요청)
  - ④ 요코하마시청사 바로 옆 오크우드 스위트 요코하마(Oakwood suites yokohama) 호텔 무료 전망대(46층) 현장 답사

현장 답사 결과 및 시사점	①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기념 프레젠테이션룸 현장 답사	
<p>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기념 프레젠테이션룸 현장 답사: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님의 안내로 미나토미라이 사업 추진 이전 요코하마 항구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자료 살펴봄. 관련 설명자료 수집</p>		
		

미나토미라이 지역 주요 도시디자인 사례: 쿠니요시 나오키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랜드마크 타워 주변 현장 답사. 랜드마크 타워에서 사쿠라기초역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에스컬레이터, 에어캐빈, 1930년(쇼와5년)에 건조된 범선 닛폰마루 메모리얼 파크, 지하통로에 게시된 요코하마 도시계획 기록 등 인근 지역 주요 도시공간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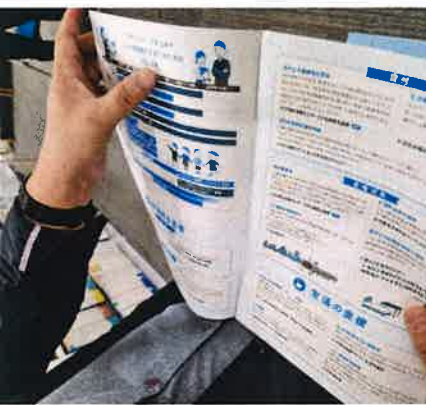


요코하마시청사 방문 후 public information center 방문하여 정책자료 검색 및 정보 수집:

육아응원아파트, 육아리브인 등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자료 요청 후 홈페이지 검색 방법 등 안내받음. 출장 전 사전 조사 자료와 출장 후 정보를 토대로 요코하마시 육아지원 정책을 정리할 수 있었음.



요코하마시청사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은 Assistance Dog Toilet임. 시청사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넘어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 사람과 동물의 공존, 그리고 배려가 돋보이는 사례였음





※ 요코하마시청사 방문 자료 및 정보 안내에 따라 조사한 요코하마 육아지원 정책

□ 요코하마시 육아지원 정책

(1) ‘지역육아응원아파트(地域子育て応援マンション)’ 인증제도

- 요코하마시는 면적, 방음시설 등 육아에 친화적인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위한 육아 시설을 겸비한 아파트를 ‘지역육아응원아파트’로 인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응원아파트’ 인증제도는 현재 요코하마 내 20개의 인증 아파트가 있음
  - 분양임대, 신축기존의 주택 상관없이 인정대상을 넓게 설정함
- ‘지역육아응원아파트’ 인증 시 받는 혜택
  -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응원아파트’ 명칭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환경이 좋은 아파트로 홍보할 수 있으며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 공인 매물로 소개됨
  - 지역을 위한 육아 시설 설치 시 육아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만큼 용적률만큼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음
  - ‘지역육아응원아파트’ 구매자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됨

정책사례명	지역육아응원아파트(地域子育て応援マンション) 인증제도
추진 배경	- 육아 시설을 증설하는 것 보단 육아기능이 겸비된 주거시설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처음 시행되었고, 가장 최근엔 2022년 5월 ‘더 파크 하우스 요코하마 신코야스 프런트’가 인증 받음</li> </ul> </li> <li>■ 지역 또는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든 블로섬 아자미노(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아자미노 잇초메 32번 6), 브로테 요쿠라야마(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오쿠라야마 4가 991) 가 대표적임</li> </ul> </li> </ul>

자료: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응원아파트 인정 멘션 일람(2023)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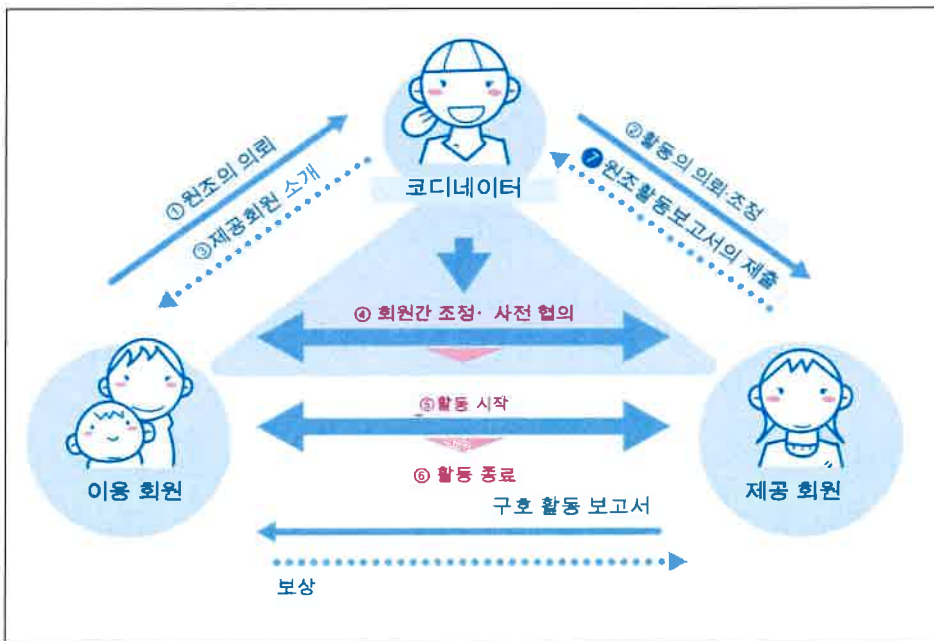
(2) 자녀양육가구지원 정책

- ‘자녀양육가구지원’ 사업은 주로 미취학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놀고,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는 장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 육아 지원 거점’, ‘부모와 아이 광장’, ‘유치원 놀이마당’, ‘보육 육아광장’가 있음
- ‘지원 육아 지원 거점(地域子育て支援拠点)’ 사업은 미취학 아동과 그 보호자가 놀고, 교류하는 공간의 제공, 육아 상담, 육아 정보의 제공 등을 이용등록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 ‘지원 육아 지원 거점’ 시설은 2012년에 18개에서 2023년 8월 기준 25개로 늘어남
- ‘부모와 아이 광장(親と子のつどいの広場)’ 사업은 부모와 주로 0~3세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식의 교류의 장 제공, 육아에 관한 상담, 육아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 육아 및 육아 지원에 관한 강습 실시를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임
  - ‘부모와 아이 광장’ 시설은 2012년 41개에서 2023년 8월 기준 70개로 늘어남
- ‘유치원 놀이마당(私立幼稚園等はまっ子広場)’ 사업은 미취학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을 개방하여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놀고, 육아 상담, 육아 강좌,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 '유치원 놀이 마당'은 해당 유치원에 재원 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해당 유치원을 미취학 아동에게 개방하여 부모와 놀며 유대를 쌓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임
- 개방하는 유치원은 2012년 20개소에서 2023년 8월 기준 44개로 늘어남
- '보육 육아광장(子育てひろば)' 사업은 요코하마시 내에 보육원을 개방하여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과 마음껏 놀고 부모는 보육사에게 육아 상담, 육아 강좌 등을 진행하는 사업임
- '보육 육아광장' 사업은 요코하마시 내에 보육원을 개방하여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과 마음껏 놀고 부모는 보육사에게 육아 상담, 육아 강좌등을 진행하는 사업임
- 주 3회 이상 개방하는 '보육 육아광장' 상설 시설은 2012년 33개에서 2023년 8월 기준 38개로 늘어남

(3) 육아 서포트 정책

- 요코하마시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영유아, 어린이를 일시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육아 서포트시스템(横滨子育てサポートシステム)'사업과 '영유아임시 탁아 사업(乳幼児一時預かり事業)'이 있음
- '육아서포트시스템(横滨子育てサポートシステム)'사업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아이를 맡기고 싶은 사람과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육아 코디네이터가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임
- 회원제로 진행되는 유료 사업으로 생후 57일 이상인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이 대상임
- 원칙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하룻밤 보관은 불가능함
- 병에 걸린 아이의 간호를 위한 맡김은 실시하지 않음
- '육아서포트시스템'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음



자료: 요코하마 육아서포트시스템 홈페이지(<http://famisapo.city.yokohama.lg.jp/mechanism-flow/>)

- 이용 회원은 아이를 맡아주길 원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이 필요할 때, 직장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출근 시간이 일러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등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제공 회원에게 아이를 맡기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임
- 제공 회원은 육아 지원에 대한 열의가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이용 회원이 맡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이용회원에게 이용료를 받는 사람임 제공회원이 되는 것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무국이 실시하는 연수를 수강해야함
- 이용료는 1시간에 800₩(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고 그 이외의 시간과 공휴일은 1시간에 600₩임
  -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 확충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이용료가 인하됨
  - 한부모 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육아서포트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이용료에 대해서는 아이 1명당 최대 24,000₩을 지원하기도 함
- **요코하마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 확충책으로 ‘육아서포트시스템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지원을 확대함**
  - 1시간의 이용료가 800₩에서 500₩으로 300원 인하(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이용료 100₩ 증가)

사업명	이용료(시간 당)			
	2023년 7월 1일 이전		2023년 7월 1일 이후	
육아서포트시스템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	그 외 시간, 공휴일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	그 외 시간, 공휴일
	800₩	900₩	500₩	600₩

자료: 요코하마 육아서포트시스템 홈페이지(<http://famispocity.yokohama.lg.jp/mehraism-flow>) 자료 재구성

- 제공 회원에 대해서 이용 회원이 주는 이용료에 더해 요코하마시에서 시간 당 500₩의 급부금을 지급함
- 2023년 4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세대의 이용 회원들에게 ‘육아서포트시스템’ 8시간의 무료 이용권을 배부함
- ‘영유아 일시 탁아 사업(乳幼児一時預かり事業)’은 일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한다거나, 자신만의 여가시간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등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아이를 요코하마시와 연계된 보육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사업임
  - 대상은 생후 57일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동임
  - 아동 1명당 달에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복수의 시설을 이용해도 달에 총 120시간까지임
  - 보통 월요일~금요일에 아이를 맡으며 공휴일 및 정해진 시간 외에는 맡지 않음
  - 시간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연장형 시설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맡아주기도 함
- 2023년 7월 기준 요코하마 내 총 30개의 ‘영유아 일시 탁아 사업’ 시설이 있으며 요코하마시는 계속해서 신규 사업자를 모집 중임

- '영유아 일시 탁아사업'의 이용료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시간당 300원 이하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부 감면 및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구분	대상 아동	감면되는 액수
1	생활보호 세대의 아동	전액 감면
2	비과세 세대의 아동	
3	한부모 세대(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등)의 아동	
4	시·읍·면민세 소득 비율 시산금액이 77,101원 미만인 세대	이용료 총액의 2/3 감면

자료: 요코하마 육아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anisapacity.yokohama.lg.jp/mechanism-flow>) 자료 재구성

- 시간 당 이용료 외에 간식 등 식비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며 이용료를 감면받는 세대도 간식 등 식비 등은 부담함

(4) 각종 아동수당

- 요코하마시는 육아 지원을 위해 부모 및 그 외의 보호자가 육아에 대한 제일적 책임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식하에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아동 수당을 지급함

- 대표적인 수당으로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이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등 생활에 안정을 기여하고, 출산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급대상자는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의 양육자로 대대상이 되는 아동은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학교 수료까지의 아동임

- **아동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2월, 6월, 10월에 전 4개월분을 지급함

대상	소득제한 한도액 미만 (아동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 (특별급부)	기타
3세 미만	15,000원	아동 1명당 5,000원	2022년 6월부터, 소득의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없어짐
3세 이상~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으로 첫째 및 둘째 자녀	10,000원		
3세 이상~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으로 셋째 자녀 이후	15,000원		
중학생	10,000원		

자료: 요코하마 시청 홈페이지(<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 자료 재구성

- **아동부양수당**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아동 가정(한부모 가정 등)의 생활의 안정과 자립 촉진에 기여해 아동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 하는 수당임

- **아동부양수당**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18세 미만 혹은 20세 미만으로 정부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육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대신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음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이혼한 아동</li> <li>■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의 있는 아동</li> <li>■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아동</li> <li>■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1년이상 유기된 아동</li> <li>■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판소로부터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받은 아동</li> <li>■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li> <li>■ 혼인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아동</li> </ul>
--	--

○ 아동부양수당의 액수는 다음과 같음

아동 수	전액 지급액	일부 지급액
아동 1명일 때	44,140¥	44,130¥~10,410¥
아동 2명일 때	10,420¥을 가산	10,410¥~5210¥을 가산
아동 3명 이상일 때	3명째 이후 1명당 6,250¥을 가산	6,240¥~3,130¥을 가산

자료: 요코하마 시청 홈페이지(<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 자료 재구성

- 아동부양수당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전 2개월 분을 연 6회 지급함

(5) ‘육아 리브인(子育てりぶりん)’ 제도

○ ‘육아 리브인’ 제도는 수입이 적고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세대를 위해 주거환경 등 육아에 배려된 민간의 기존 주택을 요코하마시가 ‘육아 리브인’으로 인정하고 집세 보조를 포함하는 임대주택 제도임

- ‘육아 리브인’ 주택은 제일 가까운 철도역까지 도보 또는 버스로 20분, 소아과 까지 도보로 20분, 초등학교, 문방구, 아이가 놀 수 있는 공원까지 1km의 주변환경을 가지고 있음

○ ‘육아 리브인’ 제도는 달에 최대 4만엔, 최장 6년간 집세를 보조해줌

- 집세 보조 기간은 입주요건을 채우고 있어서 최대 6년까지이고, 6년 미만이어도 입주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집세 보조가 없어짐

- 6년이 지나 집세 보조가 없어져도 계속 살 수 있음

○ ‘육아 리브인’ 입주요건은 다음과 같음

입주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월 수입이 214,000¥ 이하일 것</li> <li>■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의 사람일 것(단, 집세 보조의 경우는 출산 이후에 대상이 됨)</li> <li>■ 동거자 전원이 2촌 이내의 친족일 것(이유가 있는 경우 6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족과의 동거 가능)</li> <li>■ 입주하는 사람의 어느 한 쪽이,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또는 재근하고 있을 것</li> <li>■ 연대보증인(214,0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게 가능하거나 관리업무자가 지정하는 보증회사의 이용이 가능할 것</li> <li>■ 신청자 또는 동거자가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필요로 할 것</li> <li>■ 주민기본대장법에 말하는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것</li> <li>■ 주민세의 체납이 없을 것</li> <li>■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 아닐 것</li> </ul>
------	---

자료: 요코하마 시청 홈페이지(<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 자료 재구성

현장 답사 결과 및 시사점	④ 오크우드 스위트 요코하마 호텔 무료 전망대(46층)	
<p>요코하마시청사 바로 옆 오크우드 스위트 요코하마(Oakwood suites yokohama) 호텔 무료 전망대(46층) 현장 답사. 랜드마크 타워의 유료 전망대와 더불어 요코하마시청사 바로 옆 호텔 46층 전망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생활 인구를 대상으로 관광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어 요코하마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됨.</p>		
		

#### 4) 미나토미라이21 지역 아카렌카 창고 및 야마시타 공원 현장 답사

- 장소: 아카렌카 창고 및 야마시타 공원 현장 답사
- 일시: 2023년 9월 23일 09:00~16:00
- 참석자: 최성은, 이형복, 안용준
- 현장 답사 내용: 호텔 체크아웃 후 미나토미라이21 지역 야마시타 공원 현장 답사
  - 야마시타 공원은 관동 대지진의 잔해를 매립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든 요코하마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임. 요코하마 앞바다를 따라 700M가량 이어지는 해변공원으로 요코하마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임
  - 요코하마의 풍경과 바다가 보이는 요코하마에서 가장 명한 공원으로 찰리 채플린이 탑승했던 선박인 히카와마루 선박과 18M의 실물 건담을 볼 수 있는 건담 팩토리,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 동상 등 다양한 조형물들을 볼 수 있음
  - 야마시타 공원 내 현장 답사 장소: 건담팩토리, 아카렌카창고, 히카와마루 선박

현장 답사 결과 및 시사점

아카렌카 창고 및 야마시타 공원 현장

야마시타 공원 내 건담팩토리: 18M 건담  
 공원 입장은 무료이나 히카와마루 선박 입장과 건담팩토리 입장은 유료임.

세종시의 경우, 금강을 활용한 비단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체류인구의 유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야마시타 공원 내 주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 PM.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거리 홍보를 실시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PM은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구조임



아카렌카창고(좌), 중요 문화재 히카와마루(HIKAWA MARU) 선박(우): 아카렌카창고는 소규모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청년과 관광객이 많아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음.

히카와마루는 1930년에 일본우선시업을 항로용으로 건조한 호화객선임. 1961년부터 야마시타 공원 앞에 계류 보존되어 왔음. 태평양 전쟁 전 일본에서 건조되어 현존하는 유일한 화물여객선. 2016년에 중요 문화재로 지정. 오랜 역사를 가진 여객선을 관광 명소로 활용한 사례. 선박 내부를 세세히 살펴볼 수 있는 동선 안내와 보존 상태가 인상적이었음



## IV

## 출장성과(또는 기대효과)

### 1. 예상 기대효과

- (기대효과) 상생연구 중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주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해외 사례 또는 전문가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상황임. 일본의 동경과 요코하마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가능성을 학습하고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의 인구 및 저출생 대응 현지 조사 및 정책 자료수집을 통해, 출산감소유형별 정책적 시사점 도출 시 일본의 인구감소위기 대응 정책 사례를 참조하여 정책 제안이 가능함
  - 일본 동경 및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사례 현장조사를 통하여 생활인구 유입, 체류인구 유입의 가능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출장 성과

- 도쿄도청사 방문: 생활 인구와 체류 인구 유입을 위한 도청사의 활용, 반려동물 양육세대와 비반려인 세대 간 공존을 위한 노력, 고령자 일자리 연계
  - 도쿄도청사 무료 전망대 사례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공공기관을 활용해서도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야간 시간에 공간이 폐쇄되는 우리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개방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 도쿄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대전과 세종 역시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도쿄도청사 제1청사 로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려동물 양육, 에티켓 등 자료 전시, 파일케이스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 홍보물 무료 배포 중임. 최근 대전과 세종시의 경우도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비반려가구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바, 청사 로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민 친화적 정보 제공 방식은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도청사 야간개장 관련하여 근무 중인 고령자 근로자를 통해 “공공기관-관광 콘텐츠-시니어 일자리”라는 생태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짐. 우리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을 매력적인 관광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니어 또는 청년(통역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면 정주 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 인터뷰 및 현장 조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 육아 친화적인 거주환경
  - <미나토미라이21>은 요코하마시 니시구와 나카구에 걸쳐 만들어진 계획도시로 1980년대부터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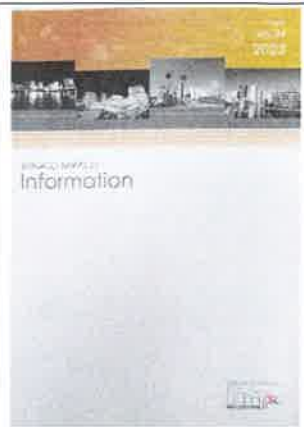




- 까지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임. <미나토미라이21>은 현재 요코하마에서 관광지로의 역할을 제일 크게 하는 곳이며 관광지가 밀집해 있고 깔끔하고 멋진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요코하마에 가면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지역임
- <미나토미라이21>은 항구(港)를 뜻하는 일본어인 ‘미나토’와 미래(未)를 뜻하는 일본어인 ‘미라이’와 21세기를 합성한 단어로 ‘21세기 미래의 항구도시’라는 의미를 가짐
  - 1989년 개최된 요코하마 박람회 이후 낙후된 요코하마 항과 그 주변 시설물을 활용하여 미래형 도시지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기획에서 시작됨
  - <미나토미라이21>은 현재 기업본사, 다국적 기업 등을 분담하는 수도기능 분산 역할과 요코하마 시민들에게는 요코하마 미술관, 콘서트홀, 공원녹지 조성 등으로 여가 생활 역할까지 하고 있음
  - 이번 공무국의출장을 통해 경험하게 된 요코하마시 사례는 매력적인 도시 공간이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과 인구 유입 간의 양(+)<sup>2</sup>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이었음
  - 쿠니요시 나오키 교수님의 안내를 통해, 도시를 사랑하는 공무원이자 디자이너, 교수 및 연구자로서의 그의 삶을 배울 수 있었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매력적인 도시 공간이 창출되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음
  -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 사업은 단순히 공간을 변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요코하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향후, 대전시와 세종시가 도시디자인을 통해 공간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목표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닌, 시민이 느끼는 정서적인 만족도, 자긍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사람과 공간의 하모니를 통해 요코하마시가 얻은 것은 단순한 30~40대가 살고 싶은 도시 1위만이 아니라, 매력적인 관광도시, 벤치마킹하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는 결과를 낳았음. 육아 친화적인 공간 조성<sup>3</sup>과 보육정책이 만드는 시너지는 주 출산 연령대 인구의 유입을 이끄는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시민들과 함께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 지역 외 주거지역의 변화를 도모하여 과거 공무원과 도시 디자이너들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을 꾀하고 있음. 이러한 끊임없는 도시에 대한 개선 노력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됨
  - 요코하마시청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공간은 Assistance Dog Toilet임. 시청사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넘어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 사람과 동물의 공존, 그리고 배려가 돋보이는 사례였음
  - 요코하마시청사 바로 옆 오크우드 스위트 요코하마(Oakwood suites yokohama) 호텔 무료 전망대(46층) 현장 답사. 랜드마크타워의 유료 전망대와 더불어 요코하마시청사 바로 옆 호텔 46층 전망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생활 및 체류 인구를 대상으로 관광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어 요코하마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됨
  -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지구와 아마시타 공원 사례의 시사점: 에어캐빈이나 친환경 PM 등의 기

술적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선제적으로 그 지역의 경관과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의 배치와 활용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 유의미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다고 평가됨

- 또한, 세종시의 경우, 금강을 활용한 비단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체류인구의 유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 요코하마시 현장 답사를 통해, 대전과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가능성을 학습할 수 있었음

### 3. 취득자료

<p>① 2023년 3월 발행 요코하마 어린이 미래 응원 가이드 북</p>		<p>⑤ 미나토미라이 21 information</p>	
<p>② 2023년도 요코하마의 교육</p>		<p>⑥ 요코하마시 어린이 주거에 대한 물가상승 대책 지원금 모집 안내</p>	
<p>③ 2023년도관 생활가이드</p>		<p>⑦ 요코하마시 어린이 거주 공간 만들기 지원 보조금</p>	
<p>④ 2022~2027년 제2기 요코하마시 어린이 빈곤 대책에 관한 계획</p>		<p>⑧ 한부모가구 경제적 지원 방안</p>	

<p>⑨ 2022년 3월 요코하마시 인권 시책 기본계획 지침</p>		<p>⑪ 요코하마 어린이 식당 지역 식당 계획</p>	
<p>⑩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2012년 3월</p>		<p>⑫ 자살예방대응정책 (당신이 알면 좋을 것들)</p>	

## V

##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横浜市地域子育て応援マンション認定制度認定マンション一覧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응원이파트 인 정 멘션 일람(2023)

## [사이트]

- 도쿄관광 공식사이트 GO TOKYO(<https://www.gotokyo.org/kr/index.html>)
- 도쿄도 홈페이지(<https://www.metro.tokyo.lg.jp/>)
- 요코하마 육아서포트시스템 홈페이지(<http://famisapo.city.yokohama.lg.jp/mechanism-flow>)
- 요코하마시청 홈페이지(<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 자료 재구성